

현대불교 98년 기획 돌부처를 찾습니다

동성재 미륵불

가뭇에 비내린 영험석불

■ 석불연구회 제보·답사

가야산국립공원 백운동 동성봉 팔부능선에 미륵불이 있다. 거대한 너럭바위 밑 약간 붉은색을 띤 바위에 예쁘장하게 새긴 이 미륵불은 2m 정도의 키에 6cm의 육계, 목까지 늘어선 귀, 산도가 표현된 목, 허리는 잘록하고 얇은 법의를 두르고 있다. 수인은 봉인을 표현하듯 오른손은 시무외인을 하였고 왼손은 여원인으로 돼 있다. 미륵불은 손가락이 떨어지고 코가 풍겨져 심한곳이 없으며 상체에 비해 하체가 약하게 처리되었다.



◇가야산 동성봉 팔부능선의 미륵불.

오른손 시무외인 형상 손가락·코 등 뭉개져 전통 불상양식과 달라

동성재 미륵불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거대한 너럭바위 밑 약간 붉은색을 띤 바위에 예쁘장하게 새긴 이 미륵불은 2m 정도의 키에 6cm의 육계, 목까지 늘어선 귀, 산도가 표현된 목, 허리는 잘록하고 얇은 법의를 두르고 있다. 수인은 봉인을 표현하듯 오른손은 시무외인을 하였고 왼손은 여원인으로 돼 있다. 미륵불은 손가락이 떨어지고 코가 풍겨져 심한곳이 없으며 상체에 비해 하체가 약하게 처리되었다.

이니 하신할 때까지 나를 찾지 마시오. 젊은 거사는 그걸로 가야산에 올라 동성재 바위에 미륵불을 새기 시작했다. 이후부터 백운계곡에는 날마다 정소리가 들렸다. 하루 이를, 한달 두달이 지나 석달째 되는 날 젊은 거사의 마음속에 있던 미륵불이 바위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때 한낮이었음에도 천지가 짙은 안개로 변하고 소나기가 내렸다. 그후로 바위를 쪼는 정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모녀가 젊은 거사를

찾아 동성재 미륵불앞에 왔을 때는 정 하나와 쇠망치만 남아 있었다. 모녀가 젊은거사를 찾았지만 그 모습이 묘연했다. 모녀는 미륵불에 짙은 한뼘 집으로 가지않고 해안사로 가 입산출가했다. 한국석불문화연구회 사헌 답사부장은 "위치상 암자나 사찰이 없었던 곳이라서 학술적 고증을 통한 정밀분석이 필요하다"며 "전통적인 기법과 과정, 절차로 조성된 것이 아닌 전형적인 불상과는 다른 차원으로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리=김원우 기자

삼승리 밥할머니상

정영호박사 고증



삼승리 밥할머니상(본지 160호 11면 보도)은 수인과 우견편단을 한 법의와 왼쪽 팔에 걸친 법의로 보아 고려전기 조형된 약사여래불이 확실하다. 화장암의 석질이 좋고 손가락부분이 마모되지 했으나 조각이 섬세하고 정교하다. 또 양쪽 어깨에서 내려오는 팔이 유난히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다.

고려 약사여래불 확실 불두복원 지방문화재로

불두가 없어 완전한 모습을 갖추지 못해 유형문화재 지정은 어려우나 보존가치가 충분한 만큼 지방문화재 자료로 지정하여야 할 것이다. 전각을 지어 실내에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고려양식의 불상을 본떠 불두를 복원한 뒤 고양 관내 사찰로 옮겨 상보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보존 방법으로 사료된다. (한국고원대 박물관장)

신행수기 당선작

특별상(중단협회장상)

애니, 미국까지 와서②

미

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은 이민생활이라는 테두리에 갇혀 내부에서 일한 한국적 기독교정신(?)에서 나온 열성적인 믿음으로 두꺼운 벽을 치고 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우리의 정신문화를 깔고 버리고 기독교 사상으로 무장한 그들이 과연 진정한 기독교 정신을 꽃피우고 있는지 한번쯤 스스로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이 드는 것은 내가 불자라서만은 아니다.

테레사 수녀님의 보살행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얼마나 고귀하고 성스러운가! 인간의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이가 기독교인이고, 부처님의 말씀과 지혜로써 해결할 수 있는 이는 불교인일 것이다. 나의 믿음만이 최고라는 법은 없을진대...

가끔 가게에 들어서 물건을 사가는 중년여성. 어느날 그녀는 내가 불자임을 알고서는 두 눈이 휘둥그레진다. "어머머... 미국까지 와서 불교라니!"라고 한마디하며 어이없어하던 그녀는 금방 표정이 심각해지면서 이민생활의 이모저모와 현실에 맞는 믿음을 가지라며 훈계를 한다.

신앙이란 한 인간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 수 있는가에 큰 역할을 한다. 아니 전부를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록 종교는 없었지만 내 자신의 신앙에 비추어 부끄럽지 않은 생활을 하겠다는 신념 하나로 지내온 나의 20대. 22년전 처음 미국에 도착했던 나는 어디를 둘러봐도 생소했던 주위환경 속에서 인간관계의 갈등까지 겹치게 되어 무척 힘들었다. 그때 원불교라는 공동체에서 위로 받았다. 교우님과의 인간적 교류에서 포근한 모임을 느꼈다. 나름대로 내 삶의 지표로 삼았던 법칙과 우주 진리의 질서가 그곳 교리에 정리되어 있음을 보았다.

나는 불교를 그렇게 만났다. 이후 부처님과의

깊은 인연에 빠져들게 되었다. 현재의 삶에 이르러 한 과거의 삶을 자주 생각해 본다. 나에게 주어진 어떤 고통도 그냥 온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고통이 그대로 머물지 않음도 알게 되었다. 이 세상의 온갖 일들이 내 마음에서 비롯됨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사람으로 맺어졌던 첫남편과는 팔이 하나를 놓고 헤어졌다. 그 이이는 미국인 가정에 입양되었다. 생사를 맞는 듯한 아픔으로 5년을 살았다. 오직 부처님만이 삶의 의지처였다.

그후 재혼하여 아이 셋을 낳았다. 12년간의 결혼생활은 순탄했고 행복했고, 안정되었다. 소위 말하는 밝은 미래도 설계했다. 거의 맨주먹으로 시작한 이민생활의 갖가지 굴곡은 일거리들을 무난하게 헤쳐 가고 현실생활에 필요한 것을 얻는 데도 궁색할지 않을만큼 자족도 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뤄졌다. 순조롭다는 의미가 아니다. 외국에서의 생활이 어찌 힘들지 않리오. 다만 정신적으론 어려움을 못 느꼈다는 것이다. 우리 가정은 성공한 이민가족의 전형적 가정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던 내가 5년전 이혼을 당했다. 이혼했다는 말은 내 경우에 맞지 않다. 5년전 한국에서 온 시누이, 8년전에 오셔서 3년동안 별 문제없이 함께 지냈던 시어머니, 그리고 애들아빠는 내가 한가정을 이룰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결정되고 이혼을 강요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난 비켜 서기로 했다. 비켜서는 일은 이혼장에 서인하는 일이었다.

지치고, 절망하고,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안고 있던 당시의 내가 부처님 인연법을 들었다면 어떻게 지냈을까? 아마 살인자가 되었거나, 정신병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쯤 무덤속에 갇힌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었을 것이다.

김연장 (미국 뉴욕시 거주)

고통이 어디서 왔는가 이 세상 온갖 일들은 마음에서 비롯됨을...



그림·이준석

방송단신

조계종 '자비의 탁발' btn, BBS 13일 생중계

불교TV와 불교방송은 조계종 총무원이 13일 오후 2시부터 실시하는 '제2회 한민족 공동체를 위한 자비의 탁발' 행사를 2시간 동안 현장 생중계 방송한다. 청정과 무소유의 정신이 담겨 있고 거룩한 수행의 방편으로 중생구제를 다짐없이 이루고자 하는 의지

의 표상인 탁발, 부처님의 근본정신을 따라 사회적 자비 실천 운동의 일환으로 마련되는 이번 행사를 선포식이 열리는 조계사 대웅전에서부터 종로2가, 탑골공원에 이르기까지 전 일정을 카메라와 마이크가 같이 이동하며 현장의 분위기와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해준다.

IMF 극복방법 소개 BBS 열반재일 특집

불교방송은 불교명절인 열반재일(13일)을 맞아 12, 13일 오후 5시10

분부터 6시까지 경제학과를 극복할 수 있는 불교적 실천 방법들을 소개하는 '특집, 연꽃으로 피어나라(PD 박상필)'를 방송한다.

부처님께서 현실의 모순과 고통을 극복해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얻은 열반재일. 이날을 기리기 위해 기획한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불교계에서 시도하는 IMF 극복전략을 탐방하고 3박4일의 단기 출가세원과 무료 직업소개소 등의 안내도 곁들인다.

또 불교경전에서 찾아보는 IMF 극복방법도 소개된다.

불교TV 26일 주총

불교TV(사장 정우성)는 26일 오후2시 구룡사에서 제4차 정기 주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2월25일 열린 정기 이사회에서 통과된 '97 회계연도 결산' '회장직제 신설로 인한 일부 정관개정' 등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된다. 이번 정관 개정은 대주주였던 태음스님이 사장직을 사임함에 따라 회장직제를 신설, 태음스님을 회장으로 위촉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

PCS 016을 쓰시면 1년에 20만원이상 절약됩니다.

오래 쓰시면 추가로 최대 20%까지 할인됩니다

이용기간	1년 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할인율	5%	10%	15%	20%

번호를 지정하시면 20%가 더 할인됩니다
3개 번호까지 자주 쓰는 번호를 지정하시면 그 번호의 통화료는 20%이상 할인됩니다 (월사용료 2,000원 정도)

PCS 016의 표준요금

구분	요금
기본료(월)	16,500원
통화료(10초당)	평상(19원) 할인(15원) 심야(10원)

작은 선택만으로 불국토를 만들어 가는 PCS 016 「부다피아 포교기금」

통화료의 5%는 통일포교와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용됩니다.

「부다피아 포교기금」 조성을 위해 스님들과 종무원을 대상으로 특별할인판매합니다.

부다피아 포교기금이란?

PCS 016 가입시, 「부다피아 포교기금」으로 신청만 하시면 최고의 이동통신서비스를 받으시면서 불국토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실 수 있습니다. 고객예견 조건의 부담도 없이 사용 통화료의 5%가 「부다피아 포교기금」으로 적립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금은 전문 단체를 통하여 통일 포교와 불우 이웃 돕기로 쓰입니다.

「부다피아 포교기금」이 꿈꾸는 세상, 모두가 하나되는 부처님 나라

주관: 현대불교신문사
후원: 한국통신프리텔, 우리민족돕기불교운동본부, 소백새마을, (사)감로심장회

신청서 접수처

우편번호 110-170 서울서 중로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부다피아 포교기금」
☎: (02) 732-1522, 737-8881,
FAX: (02) 737-0697 (02) 737-0698, 0696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국민은행	006-01-0783-279	현대불교신문사
농협	053-01-236053	현대불교신문사
우체국	010041-0289770	현대불교신문사

소리가 보인다

